

“불법도 ‘스스로 마음 봄’ 강조”

철야정진으로 일상에서도 ‘如如’



한국정신치료학회
이동식 박사



“바르게 사는 것(正命)은 자기 자신을 믿고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별다른 것 없어요.”

정신분석학의 대가 소암 이동식 박사(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회장·89)는 1976년 한국정신치료학회를 창립하고, 대한정신분석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최고”라고 강조하는 노학자는 불교와 유교, 노장 사상을 통해 서양의 정신분석학을 풀이한 ‘도(道) 정신치료’를 창안한 장본인이다.

이 박사는 정명의 조건으로 ‘자존’과 ‘자신을 돌아봄’을 강조한다. 그가 ‘도 정신치료학’의 일가를 이루며 자신의 사명을 올곧게 실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자

동양의 불·유·도교로
서양의 정신분석학 풀이한
‘도(道) 정신치료’ 창안

존’이었다. 이동식 박사는 한민족 전체가 자존감을 잃고 방황하던 일제강점기 대구의전과 서울대의대를 마쳤다. 미국에서 서양 정신분석학을 공부했던 소암은 1958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앞두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세계철학대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이동식 박사는 당대의 석학들이 떠든 내용이 무식한 한국인들도 다 알던 것임을 보고 깨달았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세계 최고이며 한국인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확신을 갖고 귀국한지 반백년이 넘었다. 지금도 소암 이동식 박사의 신념은 확고했다.

“WBC(세계야구선수권대회)를 보세요.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은 ‘한국선수 같은 선수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박사는 개인은 물론 민족의 자존을 강조하며,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도 방법을 달리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우리가 일본의 교과서를 갖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국이 교과서에서 일본은 백제의 후예라고 당당히 기록하고 땀땀이 교육시키는 겁니다. 2001년 아키히토 일왕도 직접 백제 무령왕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소암은 청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등으로부터 불교를 익혔다.

이 박사는 “청담 스님 법문을 듣다보면 하고 싶은 말은 딱 두 마디였다. ‘자존심, 자기는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다’라는 것과 ‘사람은 자기 필름을 돌리고 있다’는 두가지가 핵심인데 사람들이 못알아 들으니 길게 법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도 결국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과 불취의상자심반조(不取外相自心返照, 바깥에서 모양을 취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봄)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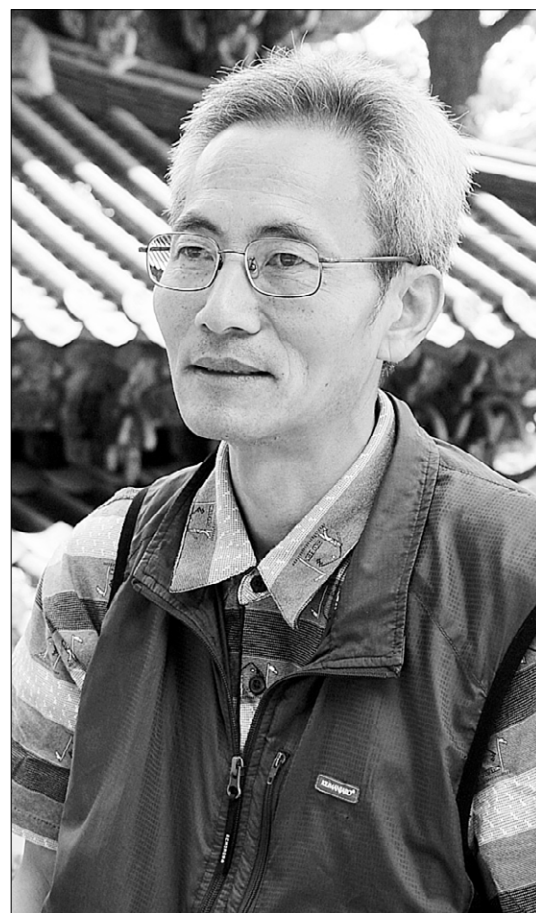
“사람들이 상대에 의존하며, 끊임없이 사랑받기만을 갈구하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개심을 품게 되는 애증(愛憎)플렉스(복)이 바로 증생(增生)입니다.”

소암은 일반적으로 ‘콤플렉스’라 알려진 개념을 ‘핵심감정’이라 이름 붙였다. “대개의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을 회피하려 합니다. 평생 자기 삶을 지배하는 핵심감정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면 핵심감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소암은 “핵심감정을 지배하는 욕구가 없어지는 때가 무아(無我)이며 진여(眞如)”라고 말했다.

“대혜의 <서장>에 나오는 애증지물(碍障之物, 가슴에 거리는 것)을 벗어남이 불교적 깨달음(覺)이며, ‘핵심감정’에서 해방되는 건강에 이르는 길입니다. 수행하면 건강해집니다.”

‘자존’을 바탕으로 ‘자기 돌아봄’을 ‘도정신치료’라는 학문으로까지 승화시킨 이동식 박사는 정명을 실천하는 재가선지식인이 틀림없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환 기자 wanihollo@hanmail.net



보림회 총무
전근홍 거사

간 화두가 딱 끊어지면서 어떠한 실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마치 포항제철 같은 커다란 공장에서 정전으로 갑자기 기계가 딱 멈췄을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적절함이라 할까, 처음으로 1초도 멈춤 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쉬어본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스승으로부터 받은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 동산이 물위를 간다)’ 화두의 답이 저절로 나왔다. 마치 정해진 답처럼 거침없이 종이에 적었다.

“예리한 칼을 들고 쫓고 쫓을 새, 갈 곳 없는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이 내 집안 소식을 토하는구나. 산은 푸르고 물은 맑은데, 할 일도 많았던 내 집안 일이 하나도 할 일 없는

백봉 거사 유훈 따라 철야정진
낮에는 길상사 사무장 소임
밤에는 스승 유교 편집과 참선

“선생님(백봉 거사의 유훈에 따라 매 주말 철야정진을 계속하다 보니 육신의 습(習)을 바꿔나가고 일상 속의 큰 경계에서도 여여(如如)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35년 여간 매 주말 철야정진과 동·하게 일주일 철야정진을 이어 온 보림회(회장 홍종화, www.borim.co.kr) 총무 겸 청봉 전근홍(58) 거사. 토요일 저녁 8시, 서울 성북구 정릉동 보림사 선방에 가면 어김없이 좌복 위에서 20여 회원들의 정진을 이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입승(立繩) 소임을 원만하게 맡아온 그의 한결같은 모습은 팔정도의 정정진(正精進: 바른 노력) 즉, 바른 생활과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항상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재가 수행의 전범이다. 한국의 유마 거사로 존경받았던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제자들의 모임인 보림회가 스승의 입적 후에도 중단 없이 정진을 이어 온 것은 청봉 거사의 헌신적인 정진력이 절대적이었다.

청봉 거사는 1974년 1주일 용맹정진을 시작으로 철야정진을 계속한 결과 1777년 여름 철야정진, 1982년 동계 철야정진에서 각각 체험을 얻고 득력(得力)함으로써, 철야정진의 중요함을 실감하게 됐다. 그가 처음 선(禪)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것은 1974년 여름이었지만, 화두가 순일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은 1977년 여름 철야정진 때였다. 당시 선방에 시계가 있었는데 참선을 시작해서 1~2분만 지나면 시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오직 화두만 들렸다. 그러자 어느 순

대대로구나.”

백봉 거사는 이 글을 읽어 보고 “전군(禪翁)이 화두를 깬다”고 말했고, 청봉 거사는 1982년 동계 철야정진 때 다시 한번 법열(法悅)을 체험한다. 이때 그는 “공경인(空劫人: 불생불멸의 본래면목을 상징)의 분상에서 공경사(空劫事)를 굴린다”는 스승의 설법을 듣고 자신이 바로 공경인이라는 실감을 절실하게 느꼈다.

“선생님은 견성을 하고 난 오후(午後) 수행에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法身)이 자체성이 없는 색신(色身)을 끌고 다닌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성태(聖胎)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당시께서도 입적하는 순간까지 옛 성현들처럼 항상 그(自性) 자리를 놓치지 않는 보임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청봉 거사는 낮에는 서울 성북동 길상사의 사무장 소임을 보면서 밤이면 스승의 유교(遺稿) 편집작업과 참선으로 쉼 틈이 없다. 늘 하심하며 드러내지 않는 공부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몸은 출가하지 않고 세속에 있으나 마음은 출가자 이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출가(心出家 身不出家)’의 경지를 엿보게 된다.

“늘 놓치지 말고 살아라” 하는 스승의 유훈은 보이지 않는 준비가 돼 오늘도 그를 ‘바른 노력’으로 이끌고 있다.

한 달, 아니 며칠도 해보지 않고 공부만 안 된다고 하는 이가 있다면 청봉 거사의 정정진을 거울 삼아야 하리라.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정명(正命: 올바른 사명) - “정명은 자기자신을 믿고 돌아보며 사는 것”

정정진(正精進: 올바른 수행) - “바른 생활과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고 용맹스럽게 나아가”

불기2553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觀音사

행자(예비스님)모집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3동 1301-20
전화 053)474-8228
한글도메인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마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성불산 안일사

주 지 선 광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6동 산225
전화 053)655-0225
부설 : 반야유치원 전화 053)655-0223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사 보현율원

회 주 명 성
주 지 진 성
율원장 흥 룬

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전화 054)370-71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